

# “간절함으로 이룬 최고의 시즌. 신기하다”



노수광

## KIA 노수광의 2016 시즌

야구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순간이었고,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고 또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돌아보면 KIA 외야수 노수광의 표정은 다양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후 10일의 휴가를 받았던 노수광은 지난 22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또 다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폭 쉬고 돌아온 노수광은 올 시즌에 대해 “최고의 시즌이었다. 신기하다”며 활짝 웃었다.

### 아쉬웠어요

**봄·여름 들쭉날쭉 플레이**

**8월 경기 중 손가락 골절**

**공격서 제대로 활약 못해**

### 최고였어요

**와일드카드결정전 ‘짜릿’**

**장기 공백에도 주전 영광**

**내겐 놀라운 한해였죠**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이적한 노수광은 올 시즌에도 빠른 발을 가진 ‘유망주’에 불과했다. 시즌 초반에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의 활약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쉬움의 봄을 보낸 그는 다시 찾은 1군에서 뜨거운 여름을 만들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그의 끈질긴 승부는 1번 타자 고민에 빠져있던 KIA에 한 줄기 빛이 됐다. 그러나 부상이 노수광의 질주를 막았다. 새로운 공격 자원으로 눈길을 끌던 그는 8월12일 넥센 원정서 도루를 하다가 왼손 약지가 골절됐다. 이후 쓸쓸한 가을을 보내던 노수광은 10월2일 kt 홈경기를 통해 그리던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노수광은 “같은 경기인데 포스트시즌에서 하는 경기는 특별했다.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도 좋다. 또 부상으로 오래 빠져있었는데 백업이 아니라 주전으로 역할을 맡겨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영광이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영광이러던 노수광의 얼굴에 이내 아쉬움이 묻어났다.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였다.

노수광은 “재활을 하면서 수비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잡으려고 수비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못해 아쉽다.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했던 승부를 해야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2차전 8회말에 나온 특급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던 노수광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야구 인생 최고의 환호를 받은 수비였지만 남몰래 가슴 졸이던 수비이기도 했다. 노수광은 0-0으로 맞선 8회말 2사 1·3루에서 양석환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며 잡살 구장에서 들끓게 했다. 하지만 앞서 박용택의 우전 안타 때 방심하다 2루까지 허용하는, 보이지 않는 실책을 기록했었다.

노수광은 “정말 아웃카운트 하나가 간절했다. 원아웃이 됐을 때 속으로 많이 좋아했다. 임창용 선배의 공을 생각하면 공이 낮게 오면서 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리 이 정도 거리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맞았을 때는 안타라는 생각도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열심히 뛰었다. 공이 빠지지 않게 글러브를 꼭 쥐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짜릿했던 순간. 승리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남았다.

노수광은 “올 시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하다. 한번 2군에 갔다오면서 마음을 다시 먹고 왔었다. 안 먹고 하려고 했다. 긴장감 없이 내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부상이 아쉽지만 최고의 시즌이었다”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또 한 번 큰 무대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빙속 월드컵 대표 선발전

### 이상화 컴백

동계올림픽 여자 500m 2연패에 빛나는 이상화(스포츠토도)가 ‘빙속 여제’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시즌 첫 국내 대회에 나선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인구 태릉국체스케이팅장에서 제51회 전국 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2017-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1~4차 대회) 파견대표 선발전을 펼친다.

종목별 선수권을 통해 뽑히는 22명(남자 12명·여자 10명)의 대표선수가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 나선다. 2016-2017 ISU 월드컵 시리즈는 11월 11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치러지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 대회가 치러진다.

이번 대회의 관심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에게 쏠린다. 지금까지 올림픽 여자 500m에서 3연패에 성공한 것은 미국의 보니 블레이어(1988년·1992년·1996년)가 유일하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2014 소치 올림픽에서 여자 500m 금메달을 석권한 이상화는 4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서 대망의 3연패에 도전한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 6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1~4차 대회까지 4개 대회에만 출전해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 2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3년 만에 왕좌를 되찾으며 ‘빙속 여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연합뉴스



## 손흥민 6호골 도전

### 리그컵 16강 리버풀전 출전

10월 국가대표 소집 이후 주축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축구 리그컵(EFL)에서 리버풀을 상대한다.

손흥민은 오는 26일 오전 3시 45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리는 EFL컵 16강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시즌 6호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지난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이탈의 선수’에 선정됐다. 같은 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CSKA 모스크바를 상대로 결승 골을 터뜨렸다. 이달 초 EPL 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 9월의 활약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A매치 두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소속팀 복귀 이후 나선 3경기에서 손흥민은 낮은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29일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 다음 달 3일 레버쿠젠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다음 달 6일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 등 만만찮은 상대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손흥민이 안필드에서 9월의 골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시카고 컵스-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월드시리즈 ‘후끈’



108년만에...



68년만에...

## “恨 풀러 가자”... 티켓값 2048만원 천정부지

### 3·4·5차전 컵스 구장 평균 342만원 치솟아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맞붙는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컵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과열 양상이다.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컵스와 1948년 이후 첫 우승을 바라보는 클리블랜드 모두 한(恨)이라면 뒤지지 않는다. 컵스는 월드컵시리즈조차 1945년 이후 71년 만이며, 클리블랜드도 1997년 이후 처음 진출한지라 두 팀의 역사적인 맞대결을 현장에서 지켜보려는 야구팬의 열기가 뜨겁다.

올해 월드컵시리즈 1, 2, 6, 7차전은 클리블랜드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3, 4, 5차전은 컵스 홈구장인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다.

시카고 현지에서 컵스에 대한 사랑은 대

대손손 내려간다. 마지막 우승이 1908년이었기에 유언으로 “년 꼭 우승을 보아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이며, 리글리 필드의 시즌권 역시 주요 상속 대상 가운데 하나다.

미국 ESPN은 24일 티켓 예매 사이트 스태트Hub(StubHub)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 리글리 필드 월드컵시리즈 3, 4, 5차전 티켓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342만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불펜 투수가 몸 푸는 걸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1루측 좌석은 평소에도 인기 있는 자리인데, 5차전 4연석은 장당 1만7950달러(약 2048만원)에 판매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3, 4차전 컵스 더그아웃 바로 뒤에 있는 2자리 가격은 1만6000달러(약 1825만원)까지 치솟

았다.

스탬퍼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좌석은 클리블랜드 홈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7차전 티켓이다. 장당 2만4500달러(약 2795만원)짜리 컵스 더그아웃 바로 뒤편 4연석이 이미 팔렸다. 만약 7차전이 열리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모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71년 만에 월드컵시리즈가 열리는 리글리 필드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다면 입석 티켓을 구매해 입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것조차 절대 싸지 않다는 점인데, 리글리 필드에서의 첫 경기인 3차전 입석 중 가장 싼 게 2275달러(약 259만원)나 된다.

두 팀의 월드컵시리즈 1차전은 26일 오후 10시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스켈레톤 세계2위 윤성빈

### “1인자와 경쟁 기대 크다”

#### “드쿠르스 의식하기보다

#### 매 시즌 목표 달성 집중”

단거리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있다면 쉐마 종목의 스켈레톤에는 마르틴스 두쿠르스(32·라트비아)가 있다.

두쿠르스는 지난 시즌 8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개를 땀다. 월드컵보다 한 단계 급이 높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두쿠르스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선수가 한국의 윤성빈(22)이다.

윤성빈은 두쿠르스에 이은 세계랭킹 2위다. 두쿠르스가 유일하게 은메달을 딴 월드컵의 금메달 주인공이 윤성빈이었다.

윤성빈을 포함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새 시즌을 맞아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면서 “2인자는 말이 없습니다. 1위에 오를 때까지 묵묵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윤성빈이다. 그는 봄, 여름, 가을 내내 두쿠르스를 떠올리며 훈련에 매진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쏟았다. “1인자”와 다시 만나는 심경은 어떨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성빈은 “매 시즌 조금씩 성장

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꼈다”라며 “사실 부담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고 답했다.

쉐마는 다른 어느 종목 이상으로 경기장에 대한 적응 정도가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윤성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두쿠르스를 누르고 금메달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윤성빈은 일단 이번 시즌 대회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매 시즌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임한다”라며 “세계 트랙별 개인 기록을 단축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트랙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용 대표팀 총감독은 윤성빈에게 ‘아직 두쿠르스를 넘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 총감독은 “너무 두쿠르스를 의식하면 자기 리듬이 깨질 수 있다”라며 “올 시즌에는 최대한 격차를 줄이고, 평창 올림픽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즌 훈련을 통해 윤성빈과(봅슬레이의) 원윤종·서영우 모두 스타트 기록을 0.04~0.07초 정도 끌어올렸다”라면서 “이를 통해 최종 기록을 0.1초 이상 앞당기는 큰 성과를 거둬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